

금주의 농사메모

기 간 2022년 3월 27일 ~ 2021년 4월 2일
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내

용

볍씨 소독은 상황에 맞춰 약제침지소독법과 온탕소독법 중 선택하고 고구마 육묘와 옥수수 조기재배에 신경 쓰고, 봄철 강풍과 황사에 대비하여 야 하고, 과수원 저온피해 방지, 황사 발생시 가축관리에 힘쓴다.

1. 벼농사

- 벼 종자는 모를 낼 논에 필요한 육묘상자를 고려하여 약 10%정도 여유 있게 준비하고, 시판상토는 상토별 장단점을 고려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위탁시험결과가 첨부되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토를 사용한다.
- 볍씨 소독은 약제침지소독법과 온탕소독법이 있으며, 약제침지소독법은 적용약제를 물 20L에 종자 10kg을 볍씨발아기를 사용하여 30℃에 48시간 담가 소독을 하고, 온탕소독법은 60℃물 100L에 벼 종자 10kg을 10분간 담가 소독한 후 냉수에 10분 이상 담가둔다.
(온탕소독할 볍씨는 사전 침지 및 염수선 금지)
- 볍씨 소독 후 종자 담그기는 적산온도 100℃ 기준으로 15℃에서 7일 동안 실시하고 신선한 물로 갈아주어 볍씨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도록 한다.

2. 밭작물

- 씨고구마를 묻을 때는 싹이 고르게 나오도록 방향과 배열이 중요한데 고구마 싹은 머리 쪽에서 많이 나오므로 한쪽으로 하고 머리 부분이 북쪽으로 향하도록 한다.
- 고구마 정식이 끝나면 비닐을 피복하고 보온과 한낮 직사광선에 의한 고온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두둑위로 흙을 덮어주며 2주 뒤 뿌리가 내리면 묘를 비닐 밖으로 꺼낸다.
- 옥수수의 조기재배(비닐터널재배) 옮겨 심는 시기는 4월 상순경이며 터널에 옮겨 심을 때는 터널설치 작업이 쉽도록 이랑너비 50cm에 포기사이를 25cm로 심는다.

3. 채 소

- 봄철 강풍으로 비닐이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끈을 튼튼하게 보강하고, 하우스를 완전히 닫고 환기팬을 가동시켜 피복재가 하우스 골재에 밀착되게 하여 피해를 예방토록 한다.
- 봄철 황사는 작물의 광합성을 억제하는 등 작물의 생육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황사 예보를 모니터링하여 비닐하우스를 세척할 물을 확보하여야 하고 일조가 부족할 경우 인공조명을 이용해 광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.
- 시설 수박의 크기는 수정 후 12일 안에 결정되므로 열매가 달린 뒤에는 토양의 수분상태에 따라 2~3일 간격으로 물을 주고 질소와 칼륨 질 비료를 공급해야 한다.
- 과습한 마늘·양파 포장은 배수로를 정비하고 습해가 의심될 경우, 비닐멀칭을 일부 걷어주어 피해를 줄이고, 노균병, 검은무늬병, 흑색썩음균핵병 등 발병 개체는 초기에 제거한 후 등록약제로 방제한다.

4. 과 수

- 배와 사과는 생육단계 중 꽃피는 시기가 저온에 가장 약하며 싹이 트고 꽃이 필 때 영하1.7℃로 떨어질 경우 저온피해를 받을 수 있다.
- 개화기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'미세살수시설'인 경우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원을 확보하고, '방상팬'의 경우 지상 7~8m높이에 설치하여 작동여부를 확인하며 '연소법'을 사용할 경우 재료를 과원에 미리 준비해 두고 저온피해가 예상될 때 즉시 가동한다.

5. 축 산

-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가축의 호흡기와 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황사 발생될 때에는 운동장,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키고, 축사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주며, 야외에 방치된 사료용 건조,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준다.
- 축사 주변과 내외부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어주고 가축의 먹이통이나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는 소독하여 사용해야 한다.